

조사료 수입개방 대응 안정 건조생산 열풍이용 건조생산 시스템 개발

초지사료과
정중성 연구사

연구배경

- 현황** ⊕ 건조 수요가 증가함에도 국내 기후 여건상 건조 제조가 불리하여 사일리지 위주 생산
 - 건조수요 : 가축 사육두수 증가 및 TMR 활성화로 매년 90만 톤 내외 건조 수입
 - 품질문제 : 국산 유통 조사료의 품질저하(수분, 이물질, 곰팡이 등)로 소비·유통 확대 저해
- 필요성** ⊕ 조사료 수입개방에 따른 국산 조사료 품질 경쟁력 확보 및 안정 건조 생산기반 구축 필요
 - 다자간 FTA체결 등 조사료 시장 전면개방 : 캐나다('24년) | 미국('26년) | 호주('28년)

주요성과

- 기술개발** ⊕ 열풍이용 건조생산 시스템 개발
 - 사일리지 수분 50% 건조(15%) : 시간 당 약 0.4톤의 건조 생산 (수분함량에 따라 변동)
 - 열풍이용 건조생산 기계화 시스템 : 베일 해체 → 열풍건조 → 베일링
- 특허출원** ⊕ 핵심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한 열풍건조 생산시스템 사업화
 - 열풍건조 생산기술 특허 4건, 기술이전 3개 업체 (기술료 계약금액 : 23,425천원) 등



열풍건조 생산시스템 모식도



열풍건조 생산시스템 설치현장(경주)

파급효과

- 기술적효과** ⊕ 국내산 조사료 품질 경쟁력 확보 및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조사료 자급률 향상
 - (기존) 사일리지(헤일리지, 사일리지) 위주 → (확대) 건조, 펠릿, 큐브 등 조사료 품목 다변화
- 경제적효과** ⊕ 열풍건조기 160대 보급 시('30년) 건조 수입량의 36% 대체 가능(약 1,800억 원)
 - 열풍이용 생산 건조 유통 금액(추정) : 357원/kg (수입 건조 : 티머시 773원/kg, 알팔파 696원/kg)